

쌀이 천덕꾸러기 돼서야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요즘 저녁 술자리에 앉으면 소주브랜드 '처음처럼'이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국산 쌀과 보리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타 브랜드를 제치고 이 소주를 택한다는 설명이다. 한두번 겪은 게 아니다.

시중에서 가장 흔히 소비되는 국민 술, 희석식 소주. 각 제조회사들은 주정판매 회사에서 주 원료인 주정을 사서 거기에 물과 감미료, 기타 첨가물을 넣어 만들 뿐이다. 이 때문에 주정회사도 아닌 특정 주류회사만이 굳이 소주병에 붙이는 '식품표 시사항 라벨'에 굵은 글씨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의미했다. 소주제조회사가 특정 주정회사와 직거래하지 않고 9개 주정회사 제품을 판매대행하는 회사와 거래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구매해 쓰는 주정은 국산 곡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소주의 주정은 1960년대까지는 쌀이나 잡곡으로 만들었다. 쌀 부족문제가 현안이 되자 정부는 1965년 쌀을 이용한 주정

제조를 금지했고 수입산 카사바나 고구마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쌀의 사용이 허용됐고 요즘은 적극 권장하는 단계이나 비용문제 등으로 대량 소비까지 확대되지 못하는 모양이다.

일각의 '국산 쌀 소주'에 대한 원인불명 '국행식' 사랑을 애주가들은 다소 어리둥절해 할 수 있다. 하지만 넘쳐나는 쌀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정부로서는 한줄기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년내내 적정량의 쌀 수급과 가격안정 대책을 놓고 정치권, 농민과 씨름하고 있다. 올해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단연코 쌀 문제였다. 지난해 정부가 쌀값을 80kg 기준 20만원선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쌀값은 17만원중반대까지 추락했고 여야 국감위원들은 거세게 농식품부를 질타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화까지 구조 변화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농자천하지대본'을 금과옥조로 여겨서인지 공급측면의 쌀산업 구조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쌀 소비량의 감소일 것이다. 1992년 112.9kg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년전인 2014년

65.1kg으로 절반가까이 줄었다. 다시 지난 해는 56.4kg으로 더 줄었다. 어쩔 수 없다. 반면 연간 미곡생산량은 1992년 533만톤에서 2014년 424만톤으로 어느 정도 줄었으나 이후 큰 감소없이 370만톤선에 있다. 식생활의 변화로 먹거리 소비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쌀 생산현장의 변화는 물론 소비형태의 전환이 뒤따라지 못해 심각한 산업 구조조정 국면에 처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며칠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침밥 먹기"를 독려한다 해서 쌀소비가 늘겠다"며 혼잣말같이 허탈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쌀소비를 권장하는 즉석밥 나눠주기 행사에 참석한 뒤 느낀 소회였다.

송 장관은 일본의 사케(일본 술 혹은 청주)업계를 벤치마킹한 전통주산업을 장려해 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쌀을 원료로 하는 일본 술이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보편화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주업계에도 적용한다면 쌀 소비확산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라도 생산을 수요에 못맞춘다면 소비를 늘려서라도 쌀 수급균형을 하루빨리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kc8472@metroseoul.co.kr

가상자산시장 변화해야



기지 수첩
이 승 용
(금융부)

투기라고 불리던 가상자산은 이제 투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만든 가상자산법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가 시행됐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 건전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상자산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투자가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 됐고, 이는 다시 서비스 발전이란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투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가상자산시장 상황은 어떨까.

글로벌 국가에서는 법제화, 서비스개선, 기술개발 등을 실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보호법만 만들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독과점'을 비판했다. 업비트는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거래소 중 점유율 60%를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 독과점 비판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해서 나왔지만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손 놓고 있다가 국감시기에만 보여주기식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 등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국가들과는 이미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실제 제도권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홍콩은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

출발이 느렸으면 노력해 따라가면 되고 주변소리를 듣고 공부해야지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독과점이 중요한 것이 아닌 가상자산시장 전체를 봐야 할 때다.

/lgy2665@

오늘의 운세 10월 18일 (음 9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안먹는다. 48년생 부지런히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60년생 현상 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72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 84년생 아침부터 상쾌한 하루이다.



37년생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라. 49년생 지나친 간섭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61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하라. 73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85년생 비단옷을 입고 춤을 추다.



38년생 시적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50년생 항상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62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가며 따라야 하는데. 74년생 허리질환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받아보도록. 86년생 사는 인생이 왜 이리 복잡한지.



39년생 일의 진척이 느려도 경거망동하지 마라. 51년생 여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63년생 기다리던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기쁘다. 75년생 밤을 이겨내야 찬란한 새벽을 본다. 87년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



40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52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64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76년생 이사 가서 좋은 일이 생기니 도전. 88년생 새벽 가치를 놓쳐 남배.



41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평소 사고 싶었던 것을 사는 것도 방법. 53년생 오늘은 기쁨이 넘친다. 65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조상님 사랑일 것. 77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89년생 오후 5시부터 운전을 조심히 해야.



42년생 재물 운이 상승하니 추진하던 일이 잘 풀린다. 54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66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78년생 가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한다. 90년생 급한 시간이나 위태한 결과.



43년생 이성에게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55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라. 67년생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좋은 땅이 된다. 79년생 구정물 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91년생 마음이 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



4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6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68년생 오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니 결정은 오전에 하도록. 80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우선 노력을 해라. 92년생 바쁘니 일손이 모자란다.



45년생 오늘은 양보가 미덕이다. 57년생 생각이 못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69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는 게 순서이다. 81년생 종이 질이 싫으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떠나가라. 93년생 기쁨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46년생 멀리 있어도 일가 가족 간의 화목이 우선. 58년생 피곤한 날이지만 영입이득으로 행복하다. 70년생 태어나서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니 죽을 때 가난한 내 책임. 82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라 했던가. 94년생 언제나 저축은 기쁨.



47년생 날마다 같은 날이 될 수 없다. 59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71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차이는 성공으로만 측정. 83년생 현실에서는 인내하다보면 내 뜻을 펼치게 될 것. 95년생 돈만 달라는 부인으로 인해 곤경에 빠진다.



김상회의四季 개천에서 용 나올 사주

형편 어려운 집안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때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고 한다. 자녀가 성공하는 건 무엇보다 본인의 사주 영향이 크다. 부모 사주에도 성공한 자녀를 두는 운세는 식상이 지지에 있는데 일간의 장생 제왕 임관에 해당하면 그 자녀가 총명하고 영화를 얻는다. 식상이 귀인과 동주하는 사주의 부모라면 자녀의 용모가 뛰어나고 부귀하게 된다. 식상이 희신이나 용신을 도와주는 사주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녀가 사회적으로 돋보이는 출세를 한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고 한다.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훨씬 높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어려운 집안의 자녀들이 학벌을 바탕으로 삼아 성공하는 길로 갈 기회가 적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필자는 개천에서 용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본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으로 일군 경영자 중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 물론 상위권 대학 출신이 더 많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대이니 능력 아이디어 창의력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성공 확률이 높다. 일부 유튜브나 인플루언서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성공을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학벌은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명문대학교에 가지 못해도 어떤 환경에서든 용이 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성공하는 자녀를 두는 부모의 사주와 운세를 볼 때마다 확신은 더 커진다. 어떤 시대가 되든 개천에서 용은 계속 나올 것이다. 총정리 한곳에 20년을 넘게 있다 보니 때가 되면 솟아올라 용이 될 잠재력의 사주를 드물지 않게 만난다. 사주는 분명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532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636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열대야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열대야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 | | | | | | |
|---|---|---|---|---|---|---|
| 2 | 7 | | 8 | 1 | | |
| 6 | | | 1 | 3 | | 9 |
| | | 4 | | | | 5 |
| 4 | | 8 | | 7 | | |
| 8 | | 7 | | 9 | | 8 |
| 7 | | | | 5 | | |
| 1 | 6 | 7 | | | | 3 |
| | 5 | 6 | | | 2 | 7 |

| | | | | | | |
|---|---|---|---|---|---|---|
| 2 | 3 | | | | | 9 |
| | | 3 | | | | |
| | | 7 | 1 | 2 | | 5 |
| | | 2 | 4 | 9 | 8 | 6 |
| | | 8 | | | 2 | |
| | 7 | 4 | 8 | 3 | 9 | |
| 7 | | | 9 | 3 | 6 | |
| | | | | 7 | | |
| 3 | | | | | 5 | 4 |